

碩士學位論文

『나사의 회전』에서 여가정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성도덕 의식

指導教授 卞 鐘 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 語 教 育 專 攻

康 成 澤

2004年 8月

# 『나사의 회전』에서 여가정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성도덕 의식

指導教授 卞 鐘 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5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康 成 澤

康成澤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國文抄錄>

## 『나사의 회전』에서 여가정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성도덕 의식

康 成 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 鐘 民

『나사의 회전』(*The Turn of the Screw*)은 헨리 제임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임스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읽히는 인기소설이다. 특히 작품의 내용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애매함과 신비성으로 인해 비평적 논란이 많은 소설이다. 무엇보다 가정교사에 의해 주로 경험되는 유령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에 따라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인물은 누구인가에 비평이 초점이 맞춰진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탐정소설의 측면에서 시작된 연구논문부터 신화적, 구조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비평방식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소설에 대한 비평적 견해는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프로이드의 심리분석학 이론을 적용한 심리주의 비평이다. 작중의 유령을 가정교사의 성적 억압 또는 충동에서 비롯된 심리적 환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심리주의 비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유령의 실체를 가정교사의 심리적 환영의 결과로 보는 데는 이제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그러나 가정교사의 심리상태를 단순히 한 개인의 정신분석학적 진단의 경우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전제이다. 가정교사가 어린이들을 지도하며 경험하는 심리적 환영의 본질적 원인은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인 19세기 말 영국사회에서 여가정교사가 처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당 시대에 여가정교사의 위치는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학습지도를 하는 차원을 넘어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정도로 도덕적, 인격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였으며 나아가 집안의 전반적인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위치에 있었다. 또한 여자로서 감당해야 할 성적, 사회적 도덕규범이 지나칠 정도로 요구되던 시대였다. 이토록 여자 가정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의식으로 인하여 가정교사는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소설에서 여가정교사의 역할은 바로 당 시대 여가정교사의 보편적인 역할과 책임을 대변해준다. 여가정교사에게 특정의 이름이 부여되지 않고 단지 ‘여가정교사’ (governess)로 불리는 것이 이를 잘 입증한다.

요컨대 이 소설에서 여가정교사가 경험하는 유령과 그에 따른 도덕성의 판단은 그 원인을 당 시대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여가정교사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막중한 책임과 도덕성 그리고 성적 억압으로 인해 가정교사는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게 되고, 또 어린이들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부담과 압박을 받은 나머지 유령의 환영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결국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유령의 경험과 도덕적 비판의 원인은 여가정교사 개인보다 사회적 특성 자체에 있다고 하겠다.



# 목 차

I. 서론 .....	1
II. 빅토리아시대 여가정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	6
III. 심리적 압박과 성적 욕구의 분출 .....	22
IV. 결론 .....	49
참고문헌 .....	52
Abstract .....	55



## I. 서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과 유럽의 양 대륙에서 활동했던 제임스(Henry James: 1843-1916)는 이전의 작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소재의 독창성과 특유의 심리묘사 기법으로 현대 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제임스 스스로 “작중 인물들 사이에 주고받는 심리와 행동의 미묘함을 중시하여 작품 속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심리적인 분위기로 다루었다”<sup>1)</sup>고 인정하듯이, 그의 소설은 유럽과 미국 문화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국제 주제, 선과 악의 표출, 그리고 예술가의 내면적, 사회적 갈등 등을 다루면서도 그 주제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술론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그는 삶의 실체를 선별적 과정으로 처리하여 제시하려 한다. 말하자면, 인간의 내면의식에 기초하여 혼재된 삶에 나타나는 여러 의미들 중에서도 삶에 관한 압축된 본질적인 의미를 상징성과 암시성을 통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관념적이거나 추상적 세계가 아닌 현실적 경험 세계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설에 대한 주제적 접근 방식을 놓고 비평가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다. 특히 “『나사의 회전』은 비록 제임스가 자신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작품이라고 언급 했지만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뒤얽힌 특유의 문체와 비교적 적은 어휘의 수에도 불구하고 그 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작품이다.”<sup>2)</sup> 그리고 이 소설이 출판된 직후의 서평을 보더라도 “가장 독자를 몰입시키고 공포를 주는 유령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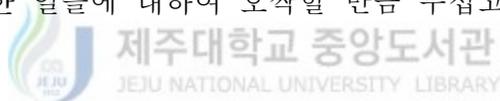
1) Mary Y. Hallab, *Notes on The Turn of The Screw* (London: Longman York Press, 1980), p. 11.

2) Donald Riche, *Eight American Authors* (Tokyo: Kenkyusha, 1956), p. 190.

들 중의 하나” 또는 “우리는 이보다 더 병적이고 더 이유 없이 우울한 이야기는 읽은 적이 없다”<sup>3)</sup>라고 평가될 정도로 이 소설은 내용상의 애매함과 해석상의 모호함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은 유령의 출현을 둘러싼 여가정교사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선악의 경계선은 물론 당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제임스 특유의 플롯과 스타일 그리고 텍스트의 모호성으로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주제적 접근은 거의 모든 비평 이론이 적용되었을 정도로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첫째, 존스(Alexander E. Jones)와 에반스(Oliver Evance) 등이 주장하는 고딕 로맨스로 보는 설로서, 유령의 실존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야기 자체를 유령 이야기로 보는 견해이다. 이 작품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블라이(Bly)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하여 오싹할 만큼 무섭고 떨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 때 내가 그 이후의 경과를 기다려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오싹하리만큼 무서웠던 나머지 나는 와들와들 심히 떨기만 하면서 그 자리에 못에 박힌 듯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연 블라이 저택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유도르포의 비밀<sup>4)</sup>, 혹은 미치광이나, 아니면 입에 담지 못할 친척이 혐의를 걸 수 없이 감금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 . 격렬한 동요에 사로잡혀 휘몰린 나는 그저 그 근처를 빙빙 돌아다니기만 했으니!”<sup>5)</sup>

위 가정교사의 독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침한 분위기와 미해결의 비밀들,

3) Kevin J. Hayes, ed., *Henry James: The Contemporary Review* (Cambridge: Cambridge UP, 1996), p. 304-305.

4) 18세기 말에 나온 여류작가 앤 래드 클리프의 공포 소설

5) Henry James, *The Turn of The Screw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ed. Sang-Sup Lee (Seoul: Shinasa, 1997), p. 74. 이 후, 본 논문에서는 이 교재에서 인용할 것이며 인용되는 부분은 ( )안에 쪽수만 기재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여가정교사가 한적한 시골의 저택에 머물며 겪게 되는 유령 이야기는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윌렌(Gerald Willen)과 루빈(Louis D. Rubin, Jr.) 등이 주장하는 창작설로 이 이야기는 가정교사의 수기라기보다는 더글라스(Douglas) 자신이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딘(Byjane Nardin)은 “『나사의 회전』은 엄격한 성도덕과 강력한 계급의식을 지닌 빅토리아 사회가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점잖은 일꾼의 사람들에게 잔인하면서도 파괴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이야기로 읽혀 질 수 있다”<sup>6)</sup>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쏘버그(Raymond Thorberg)는 작가인 제임스 자신의 전기적 사실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고 있어 이 이야기는 제임스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화재사건으로 생겨난 정신적 공포를 유령이라는 소재를 빌어 표현한 것으로 분석한다.<sup>7)</sup>

셋째, 헤일먼(Robert Heilman)의 종교적 상징설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원형 또는 신화적 모티프를 토대로 분석하여 이 이야기를 신과 인간과 악마간의 투쟁, 그리고 인간의 낙원상실과 몰락을 그린 시적 상징으로 보는 견해이다.<sup>8)</sup>

넷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환각설이다. 정신이상인 가정교사는 순진한 마일즈와 플로라가 유령들과 교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그녀가 보는 유령은 억압된 성 때문에 생겨나는 특수심리에 의한 병적인 환상이라고 보는 견해다. 윌슨(Wilson)에 의하면, 이 소설에서 유령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정교사의 병적 상상력 또는 환영의 산물로 그녀 자신의 억압된 성적 욕구와 불만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가 이 작품에서 의도한 실체가 애매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

---

6) Byjane, Nardin. “The Turn of the Screw: The Victorian background,” Mosaic 12/1 (1978): 131-132.

7) Raymond Thorberg, “Terror Made Relevant: James’s Ghost Stories,” *Dalhousie Review* 47 (Summer, 1967): 185-191.

8) Robert Heilman, “The Turn of the Screw as Poem” *University of Kansas City Review* 14(Summer, 1948), p. 174-188.

나라, 무엇보다도 빅토리아 시대 여가정교사를 통해 여성들의 삶의 이면에 근본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식을 조명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래의 인습적인 선과 악의 개념에 따라서 여성들의 특정한 행위를 판별하는 고정적인 도덕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실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의식과 행위에 대한 상대적 도덕성이 투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은 내용 자체가 지니는 애매 모호성 때문에 1898년 출판된 이래 많은 비평가마다 각각 다른 견해로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작품이다. 각기 다른 비평이론과 방식의 적용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풍부하여 『나사의 회전』은 유명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성적 욕구에 굶주린 환영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나, 탐정소설, 타락신화, 기독교적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sup>9)</sup>

『나사의 회전』에 대한 대부분의 비평적 견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당대의 분명한 관심사들 중의 하나였던 빅토리아조 여가정교사들을 비롯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일반적인 지위간의 관계, 그리고 도덕성을 비롯한 성의식의 실상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영국 소설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관심사들이 제임스의 소설 속에서도 다른 요소들과 함께 혼합되거나 혹은 위장된 채 강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임스의 소설 중에서 1898년에 발표된 『나사의 회전』(*The Turn of the Screw*)에 나타난 ‘빅토리아 시대 여가정교사’(Victorian Governess)라는 특수계층 여성의 사회적 신분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도덕의식과 그에 따르는 성적갈등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의 삶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자

9) 변종민(2001), “『나사의 회전』에 대한 비평적 고찰과 효용성의 문제,” 『영어영문학』 제 8호, p. 61.

함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범위를 빅토리아 시대 여가정교사의 신분 및 역할 분석과 함께 이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도덕적 갈등과 분출 과정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의 정체성을 살펴본 후 도덕과 예절의 수범자로서 여가정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논의 될 것이고, 제Ⅲ장에서는 『나사의 회전』에서의 여가정교사가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덕적 역할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성적인 욕구가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 II. 빅토리아시대 여가정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빅토리아 여왕은 도덕적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 남녀 모두에게 자녀생산의 목적 이외의 성 행위를 금지하는 등 건강한 국민, 성행동을 자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나 여성은 성에 대해 어떠한 것도 알아서는 안 되는 정숙함이 요구되었고 결혼 제도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아내, 어머니, 딸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사회 자체가 제도적으로 여성의 열등성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인격에 대한 인정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은 언제나 인내하고 순결하고 착하며 반드시 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이 독립하고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 이유는 집안의 천사라는 유일한 여성의 역할을 소홀히 하여 경쟁적인 거친 사회와 싸우는 남성에게 안정된 피난처를 제공해 주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은 기독교적 윤리관과 지배계층 가족상의 수호자로서 기존 사회의 이념과 가치를 공고히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사회가 금기시하는 성욕과 악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감시와 통제 대상이었다.<sup>10)</sup> 그리고 당시대의 가치 있는 여성들이 지녀야 될 것으로 간주되는 미덕들은 상냥한 이해심, 비세속성, 순결함, 가사에 전념, 애정, 분수에 맞는 순종심이었다

한편, 빅토리아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은 민주주의의 발전, 제국주의의 확

10)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상반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브람 다익스트라(Bram Dijkstra)가 저술한 『도착적 우상: 세기말 문화의 여성적 악에 관한 환상들』(*Idols of Perversity: Fantasies of Feminine Evil in Fin-de-Siecle Culture*)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장, 과학의 발달, 물질주의의 팽창으로 이어져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겪는 변혁과 갈등의 시대였다. 전통과 도덕보다는 물질주의적 인생관을 더 갖게 되어 종래의 우주관과 인간관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물론 정치, 경제, 종교, 예술, 그리고 과학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일어 전통적 가치와 신앙의 근본마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던 여성들에게도 경제적인 해방의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가 주어져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었다. 그레그(W. R. Greg)가 말하는 “품위 있는 독신녀”<sup>11)</sup>들도 이제는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수업의 확대와 더불어 학교의 교사, 간호사, 그리고 사무나 상업 세계의 비서나 점원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제임스가 고용한 타자원도 처음에는 남성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들이 이 새로운 직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3년 후 그는 여성으로 바꾸어 채용하며 “남자는 너무 비싸! 그를 채용할 비용이면 그 절반의 비용으로 능력 있는 여성을 구할 수 있어!”<sup>12)</sup>라고 친구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에게는 계층과 역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분야에 존재하는 성적 불평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여성을 가정에 한정시키고 남성적인 잣대로 여성을 판단하는 인습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옹호하여 여성의 열등성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여성의 감정은 지능발달에 최대한 걸림돌이 되는 반면 남성은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다는 남성 우월성이 만연했다.<sup>13)</sup> 또한 아이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헌신성이 강조되어 여성의 정치나 사회생활의 참여를 배제했다. 여성은 계속 “이류 시민”(second-class citizens)<sup>14)</sup>의 지위에 머물러 수백만의 노동자 계급

11) W. R. Greg, “Why are Women Redundant?” *National Review* 15 (1862), p. 434-60.

12) Leon Edel, *Henry James: The Master: 1901-1917*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1972), p. 91.

13) John Ruskin, *Of Queen's Gardens* (London: Dent & Sons, 1911), p. 50.

14) M. H. Abrams,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3rd 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5) p. 1919.

처럼 투표권이 없었고 여왕을 제외하고는 관직을 차지할 수도 없었다. 민주주의 시민은 남성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여성은 공적인 일에서 제외되었다. 당대 혼인법은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여성은 미혼 때 지녔던 시민권까지 잃게 되어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없었다. 여성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아이들 교육이나 재산 상속 권리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의 간통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남편의 의사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었지만 남자의 간통행위는 도덕적 비난 정도로 무마되던 시대였다. 또한 자본은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 새로이 형성된 중간계급 남성들이 생산적인 일을 전담하여 경제주도권을 쥐고 가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반면 여성들은 산업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 여전히 약자로서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중간계층의 지적인 미혼여성들이 갖는 일반적인 직업은 가정교사였지만 이 직업 역시 독신여성들의 재정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적당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 전통적인 중간계층에 있는 기혼여성들이 행하는 일 또한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여 자선을 베푸는 등 보수가 없는 일이 전부였다. 결국 당시의 사회는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급선무가 직업소유임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두뇌, 마음, 신체의 활동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주며 그것들은 여성들을 진정한 어머니가 되도록 만드는 데 적합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역과 같은 힘든 일이 아니라면 여성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 일을 해야 하고 소녀들은 직업 준비를 해야 한다.”<sup>15)</sup>는 보디손(Babara Bodichon)의 말처럼 빅토리아 여성들은 주어진 직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의 진보교육을 옹호했던 사람들의 힘에 의해 런던 최초의 여자대학인

---

15) Barbara Bodichon, *Women and Work* (New York: Francis, 1859), p. 21-22.

퀸스 대학(Queens College)이 1848년에 창설되고, 뒤이어 다른 여러 대학들이 창설됨에 따라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폭넓게 형성 되었다. 루이스(George Henry Lewes)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사회 질서가 부여한 차이에 불과하고 여성의 열등성도 사회 환경 탓”이라고 주장하였다.<sup>16)</sup> 더 나아가 밀(J. S. Mill)은 “법률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며 인간 발전에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완전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법이 되어야 한다.”<sup>17)</sup>고 하면서 여성에 대한 착취를 비난함과 동시에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였다. 그는 또한 법률적 의무가 계속되는 한 아내는 남편에게 얽매인 하인이나 다름이 없으면서 결혼법의 불공정성을 비난하였다.<sup>18)</sup> 스펜서(Herbert Spencer)도 결혼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시대는 문명화된 사회가 아니라 야만적인 시대이며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는 남녀 모두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새로운 사회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고유한 활동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19)</sup> 결국 이와 같은 여러 주장들은 당대 사회의 인습에 변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억압된 삶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여성문제가 사회문제로 쟁점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사의 회전』에 등장하는 여성은 19세기 산업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상업주의 문화의 팽창을 겪는 영미 사회 내에서 지위, 결혼, 교육, 경제적 자립 등의 당면 과제들을 뚜렷이 인식하고 주체 의식의 실천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제임스가 여가정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도덕주의적 인식에 근거하여 깊이 있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유령의 실재여부와 여가정교사의 극적인

---

16) George Henry Lewes, “The Lady Novelists,” *Westminster Review* 58 (July 1852), p. 129.

17) John Stuart Mill, *The Subjection of Women* (London: Longman, 1869), p. 1.

18) *Ibid.*, p. 55.

19) Herbert Spencer, *Social Statics* (New York: D. Appleton & Co., 1865), p. 166.

이상증세, 그리고 마일즈(Miles)의 죽음의 모호한 원인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제임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당대 여성의 도덕의식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제임스 문학의 본질은 인간의 외면적 현실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특수한 내면적 의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도덕성은 이 소설의 주제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포괄적이며 혼란스러운 현실적 상황에 잠재된 내면적 의미를 포착하려는 것이 제임스 문학의 본질이며 그것은 곧 삶의 핵심적인 문제인 도덕성을 규명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가정교사의 도덕성의 문제를 선택적인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소설의 평론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엘리엇(T. S. Eliot)조차도 유독 제임스에게만은 비평의욕을 보여 “제임스가 보다 더 심오한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어 도덕적 행위의 순간에 나타나는 인간의 무의식이 아닌 의식의 문제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 의미로 볼 때 그가 명백히 도덕주의자임을 보여 준다”<sup>20)</sup>고 비평하였다. 그리고 윈터스(Yvor Winters)도 제임스 작품의 근본 동기를 “아마도 인간의 성격에 최상의 상태로 내재하고 있는 도덕의식, 예절 의식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sup>21)</sup>고 하였다. 또한, 블랙머(R. P. Blackmur)도 제임스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모든 정성을 다해 낭비와 혼란과 당황함이 없이 명석하고 지성적인 형식으로 인생에 관한 주제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고도의 예술성과 건전한 도덕성이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지성과 평정심을 고집함으로써 무너지거나 흔들릴 염려가 없는 확고한 사상적인 시각 즉, 허공에 나부끼는 헛된 사상이 아니라 예술가의 삶의 깊이 에 의해서 드러나는 정보에 바탕을 둔 세련된 상상력에 입각한 실질적인

---

20) Alan Holden, “T. S. Eliot on Henry James,” *PMLA*, 79 (1964), p. 490.

21) Yvor Winters, “Henry James’s Moral Sense,” *Critics on Henry James*, p. 53-54.

삶의 이상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된 도덕적인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제임스의 예술성이었다.<sup>22)</sup>

제임스는 도덕성의 문제를 설교하듯이 직접 다루는 대신 등장인물들의 갈등구조와 사건의 전개를 통해 암시적으로 표출되게 한다. 마치 섬세하고 교묘하게 조직된 양탄자의 우아함처럼 교묘하게 구성된 작품세계를 통해 도덕성의 문제를 은은히 제시하고 있다. 결국 예술은 정신활동의 일부라는 것이 제임스의 신념인 것이다. 제임스는 자신이 스스로 이를 바늘과 실의 관계에 비유하여 “소설에서 사상과 형식은 실과 바늘과의 관계와 같다. 바늘이 없이 실의 유용성을 권하거나 실없이 바늘의 유용성만을 강조하는 양복 재단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sup>23)</sup>고 밝힌 바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제임스는 『나사의 회전』에서 여가정교사의 행위와 주변적 상황에 대한 독자들의 직접적인 도덕적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정교사 자신의 행위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과 더불어 독자들 스스로 그 인물들의 행위에 내포된 함축적인 도덕성을 탐구하도록 이끌어가는 간접적 내지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제임스 스스로가 “훌륭한 소설은 피상적 심리 상태로부터 생겨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소설 속의 그 예술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덕적인 토대를 다루게 될 것임은 너무나 극명한 이치이다.”<sup>24)</sup>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그의 작품에서 도덕개념은 인습적인 선과 악의 개념에 따라서 특정한 행위를 판별하는 고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현실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상대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22) Henry James, *The Art of the Novel*, ed. R. P. Blackmur (New York and London: Charles Scribner's Sons, 1962), introduction, xv.

23) Henry James, “The Art of Fiction,” *The Portable Henry James*, ed. Morton Dauwen Zabel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6), p. 407.

24) Henry James, “The Art of Fiction” in *Selected Literary Criticism: Henry James*, ed. Morris Shapira, (New York: McGraw-Hill, 1965), p. 66.

긴밀한 구성과 압축된 시각을 통하여 삶의 입체적인 모습을 암시와 상징으로 처리하여 도덕성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나사의 회전』이다. 제임스 자신이 스스로 여가정교사의 시각에서 그녀를 도덕성의 보존자일 뿐만 아니라 언어와 예절의 표준자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최근의 비평 경향은 1840년대 이후로 ‘여가정교사 소설’(governess novel)이라 불려져 영국 중·상층 가정에 고용된 여가정교사의 특이한 위치와 그들의 성 정체성을 다루는 것이다.<sup>25)</sup> 이런 유형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가정교사는 빅토리아 시대 가정의 이상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막중한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이었지만 그녀 자신은 독신이며 또한 결혼할 형편도 못되는 말 그대로 19세기 여성의 전형이다. 실제로 제임스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빅토리아시대 여가정교사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문학적 기법이 너무나 특수하고 첨예하며 난해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이 문제를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는 이 작품 속의 여가정교사를 블라이(Bly)라는 저택의 도덕적 권위자로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할 책임과 더불어 그곳에 엄습하는 악의 힘에 맞서서 그들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도덕과 예절의 수범자로 보고 있다.

여가정교사의 정체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19세기 여성의 여가의 발달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당시의 부유한 여자가 가정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녀의 아버지나 남편의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내보이고 싶어 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빅토리아 여성은 통념상 게으르다고 불리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 역사

25) 빅토리아조 여가정교사에 관한 주제는 19세기 자료에 근거해서 최근에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M. Jeanne Peterson: "The Victorian Governess: Status Incongruity in the Family and Society," in *Suffer and be Still: Women in the Victorian Age*, ed. Martha Vicinus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72), p. 3-19와 Mary Poovey: "Uneven Developments: the Ideological Work of Gender," in *Mid-Victorian Engla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 126-63을 들 수 있다.

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19세기 전반 초 중산층의 계층에 대한 인식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런 추세로 말미암아, 비록 중산층 여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여 많은 가사 일들을 쉴 새 없이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은 할 일 없이 태만하게 빈둥대는 것이 부유한 남성의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는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sup>26)</sup>

이와는 반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은 이러한 이상을 성취할 수가 없어서 집안일을 도와서 손수 과일을 만든다거나 혹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꾼 노릇을 해야만 했고 이러한 일꾼 여성을 고용한 그 집의 주인 여성은 그녀에게 가사를 모두 처리하도록 내맡겨 버림으로써 여성이 해야 할 전통적 역할인 가사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가정교사를 고용한 집의 주인 여성은 어머니가 가르쳐야 할 모든 책무를 그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그녀는 그 집의 아이들에게 계층에 알맞은 교양과 지식을 전수함은 물론 주인의 사회적 계층에 적합한 세밀한 도덕적 규범과 예절을 가르치는데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만 했다. 그리고 여가정교사를 두었던 가정의 어린이는 그녀가 가르치는 행동과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당대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모든 가치를 습득하여 이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830-40년대에는 여가정교사의 지위와 역할 문제에 큰 변화가 생겨난다. 가정부나 요리사는 그 기능의 특성상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가정교사는 신분과 역할의 특성상 주인 가정의 가족관계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는 불

---

26) Margaret Bryant, "The Unexpected Revolution: A Study in the History of the Education of Women and Girls," in *The Nineteenth Century, Studies in Education* (new series) 10 (London: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1979), p. 28-31.

안정한 상태로 변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여가정교사라는 지위에 대한 위력은 그 외의 다른 직책들에 비해서 그리 대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변질 되었다. 따라서 예전에 여가정교사라는 직책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당대에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가정교사들의 이런 불안한 처지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1829년 ‘여가정교사 조합’(Governess’ Mutual Assurance Society)이 조직되었다.<sup>27)</sup>

아버지의 실수와 방탕의 결과로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난 한 여성이 이후 훌륭한 여가정교사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당대의 사회적 구조는 남성위주의 사회가 초래한 경제적 혼란에 기인했던 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빅토리아시대 여성의 상처를 동시에 반증해주는 것이다. 나폴레옹 전쟁(1805-15) 이후의 어려운 시기에서는 불황으로 인해 미혼의 중산층 여성들에게 허용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한 여성들의 수가 남성들의 수보다 많게 되자 결혼 지참금이 없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19세기 여성들은 비록 처음 10년 동안은 여러 업종에서 남성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각종 직업에 대한 경쟁적인 분위기나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따라서 상류계층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여가정교사 자리는 물론 다른 고상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놓아야 할 19세기 40대의 모든 계층의 남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들이 자신들과 직업의 경쟁자가 되는 것을 쉽게 허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격리된 위치에 놓여 있는 여가정교사들에 의해 그들 남성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위협받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비록 자기 집도 아니고 또 아이의 어머니도 아니었지만 한 가정이란 틀에 박혀 어머니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여가정교사들이 확

---

27) Margaret Bryant, *The Story of The Governesses’ Benevolent Institution* (Southwick, Sussex, England: Grange Press, 1962), p. 14

고하게 생각했던 것은 남성들이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가정교사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여전히 체감해야 했던 것은 넉넉하지 못한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여가정교사들이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져 생활상의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는 점이다. 부의 획득을 위해서 한창 일을 해야 할 40대 남성들과 여가정교사들 사이에 형성되는 이러한 잠재적인 긴장감의 근본적 원인은 그녀도 급료를 받고 일하는 봉급생활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여가정교사는 한 여성이면서도 품삯을 받는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여가정교사 자신의 필요나 혹은 선택에 의해 다른 유형의 급료를 받도록 내몰리고 허용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정교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었던 이러한 잠재적인 상황을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여 결국 그들 스스로가 다른 유형의 일자리를 찾는 일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울타리를 더욱 더 확고하게 다지는 일에 전념하여 그녀들만의 독특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가정교사가 자신의 지위나 혹은 위치를 상실한다고 한다면 그녀는 아마 불명예스럽게도 형편없는 극빈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상류계층에서 노동자 계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추락한 여성”의 타락과 같은 것으로서 아내에게 부여하던 성적, 모성애적인 여성성의 정의는 여가정교사의 실체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가정교사가 모성적인 기능을 위하여 아내를 대신해서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여성을 남성 자신들을 위한 성욕의 소유물로 단순하게 생각해왔던 기존의 남성들의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한편, 소설인 경우를 제외하고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여가정교사들은 결혼에 의해 자신들의 위치를 최상의 계층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었으며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최상층과 노동자간의 계층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아마도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전문가적인 지위로서 여가정교사에 대한 품위를

보장해줌은 물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녀 자신의 전문가적 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들 중의 하나가, 비록 그 취지에 있어서 다소 관대할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여성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여가정교사들의 자격을 향상시킴으로써 더 많은 여성들을 여타의 전문직에서 남성들과 경쟁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여자대학이 설립되고 이곳에서 강의를 받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사례도 찾아 볼 수가 있다. 여러 책의 서평을 많이 썼던 릭비(Elizabeth Rigby)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녀는 보수적인 논평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주장하는 핵심은 가정교사의 중요 자격 요건이 결국 그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귀부인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가정교사로 하여금 귀부인이 해야 하는 출생에서부터 양육에 이르는 모든 문제를 도맡아 처리하도록 하고 . . . 그러면, 그녀는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안내자이자 가장 적합한 교사가 된다. . . . 여가정교사의 실질적이고 가장 숭고한 책임감과 장점은 그녀의 문학적인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도덕적인 자격에 아직도 그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sup>28)</sup>

그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가정교사의 본질이 결국 그들 자신들의 고상함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소홀히 다루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또 다음과 같이 여가정교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출생, 사상, 그리고 태도에 달려 있음을 지적한다.

28) Elizabeth Rigby, "the 1847 Report of the Governesses' Benevolent Institution", *Quarterly Review* 94 (1848), p. 176-184.

여가정교사의 처지는 다른 계층이 처한 상황 보다 훨씬 더 힘겹다. . . . 출생, 예절, 교육의 문제를 균등하게 떠안고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계층보다 더 열악한 하위에 놓여 있으며 . . . 여가정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분보다 더 높은 계층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출생 이후의 생활, 기질, 그리고 예절을 스스로 엄격하게 다스려 나가야만 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계층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는 가정교사들만의 독특한 것이었다.<sup>29)</sup>

여가정교사의 고통이 단지 경제적인 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가정교사는 그녀를 고용했던 주인의 불신의 대상일 수도 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측면에서는 귀부인의 한사람이지만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고 귀부인들과 동등한 처지도 아니다. 기껏해야 가정부나 집사 정도의 보수를 받는 여가정교사는 심지어 하인들에 의해서도 종종 불쾌한 대접을 받았다. 그녀는 소위 현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계층적 불일치(status incongruity)”<sup>30)</sup>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이라는 순수함을 유지해야하는 가정교사의 체통과 책무는 종종 독신생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즉 그녀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세계는 열리지 않는 굳게 닫힌 세계였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집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가정교사는 “금기시된 여성(tabooed woman)”<sup>31)</sup>이었으며, 게다가 나머지 다른 세계들로부터도 역시 단절된 존재였다. 다시 말해서, 여가정교사들의 가장 보편적인 불평거리의 다른 아닌 외로움이었다.

만일, 우리가 『나사의 회전』에 등장하는 여가정교사를 시대적 사실성에 기초를 두어 논한다면, 그녀를 환각적 망상의 희생물로 간주하는 윌슨(Edmund

29) *Ibid.*, p. 177.

30) 여가정교사의 계층적 불일치에 대해서는 피터슨(M. Jeanne Peterson)이 저술한 『빅토리아 시대 여가정교사: 가정과 사회에서의 계층적 불일치』(*The Victorian Governess: Status Incongruity in the Family and Society*)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1) Eastlake, untitled Review, p. 177.

Wilson)의 주장에는 분명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소설 속의 가정교사는 한정된 생활 조건 하에서 분열증세를 보였던 억압받은 여성이다. 이 시기에는 “정신병원의 많은 여성 환자들은 대부분 예전의 여가정교사들로 온통 가득 차 있었다”<sup>32)</sup>고 일컬어질 정도로 여가정교사의 정신적 소외와 갈등이 심각했었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심리학자인 콤브(Andrew Combe)는 그의 저서 『철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Physiolog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두뇌의 자극을 약화 시키고 억압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고독한 감금 상태로 치닫게 만드는 가혹한 처벌과도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로부터 계속 격리 시켜버림으로써 신체와 정신의 건전함을 파멸시켜 버리는 것과도 같다. . . . 많은 가정에서, 특히 상류 계층에서는, 여가정교사의 생활은 너무나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마치 고독한 감금 상태에 처해 있는 것처럼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여가정교사들은 하인 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인들로부터는 너무나 낮은 위치에 존재한다. . . . 오직 ‘가정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녀는 하인들로부터 만족스러운 대접을 받는다거나 혹은 자신을 고용한 주인에게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sup>33)</sup>

가정교사가 처한 이러한 몇 가지 긴장된 상황들은 빅토리아 시대 초기의 수십 편의 여가정교사 소설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런 소설들은 문학작품으로서 쉽게 잊혀져 버렸고, 그나마 그 작품들의 주제는 신의 섭리를 다룬 신앙적인 문제로 귀결되거나 혹은 여가정교사의 문제가 귀족과의 결혼에 의해서 해결되는 상류사회의 연애소설로 치부되었다.

경건하든지 혹은 감성적이든지 간에, 초기 여가정교사 소설에는 사회적 기능이 명백하게 담겨 있다. 억압된 여가정교사의 심리상태에 잠복한 위험한

---

32) *Ibid.*, p. 177.

33) Andrew Combe, *The principles of Physiology Applied to the Preservation of health and to the Improvement of Physical and Mental Education*, 7th ed. (New York: Fowler & Wells, 1848), p. 222.

징조들이 정신적으로든 세속적으로든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의 여가정교사는 부유층들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들을 치욕과 위협으로 내몰았던 문화를 적대시하거나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고 존속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로 본다. 여가정교사의 계층적 특성으로 본다면 필요에 의해 자신을 만들고 또한 다른 근로 여성들의 고통에 아마도 무관심했을 상류층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학적인 관례는 19세기 내내 존속되었다.

제임스는 실제로 어린 시절 자신을 지도했던 여가정교사의 이미지를 자신의 작품에 그려 보았다. 그는 빅토리아조 여가정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했음은 물론 중류와 상류 계층에 대한 가치의 수호자로서 영국 가정에 여전히 존재하는 여가정교사라는 하나의 기능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는 여가정교사들의 행동 양식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나사의 회전』과 같은 작품에서 당대 여가정교사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sup>34)</sup>

제임스는 여가정교사의 삶과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이기 보다는 품행과 체통을 중시하는 도덕과 가치의 전수자임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가치추구가 아닌 환경적 상황에서의 내면의식의 변화를 묘사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했음을 그의 여러 소설을 통해서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나사의 회전』을 비롯한 제임스가 쓴 여러 소설들 속 여가정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학습강의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나사의 회전』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출간된 『메이지가 안 사실』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메이지(Maisie)의 훌륭한 가정교사인 워스(Mrs. Wix)조차도 자신에게 부여된 아이들의 학습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작품에 나오는 여가정교사

34) 여성이 쓴 인기 소설에 관한 제임스의 관심과 여류소설이 그의 문학에 끼친 영향은 William Veeder의 *Henry James: The Lessons of the Master*(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나 Alfred Habegger의 *Henry James and the "Woman Busines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와 같은 문헌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이들의 지식 습득을 위한 교과목 학습을 매우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사가 게으름을 부린 것 때문에 생겨난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앞서 릭비(Rigby)가 말한 바와 같이, 여가정교사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학습지도보다 도덕적 수범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사의 회전』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임스가 여가정교사를 이토록 온화한 도덕적 이미지의 대상으로만 그리려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신적 갈등과 내면의 고뇌를 지닌 복잡한 유형의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여가정교사의 실제 위치에 대한 고통스런 모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가 알고 있었던 여가정교사는 허약한 체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하고 유순하며 주변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불안스러우며 종종 불행하거나 신경질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sup>35)</sup> 그 이미지는 『나사의 회전』이 나오기 3년 전에 출간된 『중년 시절』(*The Middle Years*, 1896)에서도 잠깐 동안 재현되었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부유한 귀족 미망인의 여성 친구는 때 묻지 않은 천연의 유리처럼 투명하지만 약간의 신경질적인 눈초리를 가진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극이나 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음흉한 여가정교사 혹은 비극적인 노처녀”<sup>36)</sup>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나사의 회전』의 7장에서 지금의 여가정교사가 예전의 가정교사인 제셀(Miss Jesse)의 환영을 보고 난 후 끔찍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녀인 그로스(Grose)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 본다. 그러자 그러한 질문에 여가정교사는 “그보다 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나운 눈초리였다니까요, 무엇을 결심하고 있는 듯한 - 무슨 사악한 뜻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눈초리였어요.” (111)라

35) Patricia Thompson, *The Victorian Heroine: A Changing Ideal, 1837-1873* (London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 39-40.

36) *The Novels and Tales of Henry James*, 24 vols., The New York Edi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7-1909), vol. 16, p. 84.

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여가정교사들이 자신들이 가르쳐야 할 아이들의 정규학습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계층 상승의 욕구에 사로잡힌 다소 사악한 모습의 여성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제임스의 다른 소설 『메이지가 안 사실』 속에 등장하는 오버모어(Overmore)를 “앞치마도 두르지 않고서 손가락을 말아 포크를 집어 들고 음식을 먹는”<sup>37)</sup> 여가정교사로 묘사함으로써 계층적 차이에 따른 생활규범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녀의 천박성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층계층에 안주한 여성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 계층에 걸맞지 아니한 천박함인 것이다. 여가정교사가 자신이 고용된 집주인 여성의 남편이나 그 아들의 유혹의 대상으로 묘사된 이유는 당시대 하층계급 여성의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표출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여가정교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는 『나사의 회전』은 19세기 중엽 영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전통적 신분계층의 이동과 전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여성에 대한 보수적 성의 개념과 이로 인한 갈등의식, 여자 가정교사라는 특수 신분의 위치와 역할 등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작중의 다른 인물보다도 여자 가정교사에 의해 집중적으로 체험되는 유령의 존재, 이로 인한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유령 체험의 심리적 갈등과 원인은 여자 가정교사라는 특수 신분이 지닌 역할의 복잡성과 내면의 욕구표출에서 기인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전제이다.

---

37) James, *Novels and Tales*, Vol II, p. 16.

### Ⅲ. 심리적 압박과 성적 욕구의 분출

『나사의 회전』의 구조는, 작가가 독자들에게 여가정교사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흔히 그것이 마치 이야기의 모호성을 가중시키려는 장치인 것처럼 논의되어 왔지만, 우리는 제임스의 사실에 바탕을 둔 관점에서 여가정교사의 억압적인 심리상태와 성의식(sexuality)의 분출 과정 전체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는 내러티브(narrative)의 출처와 관련된 시골집을 제임스가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장면을 재현한다. 이 장면은 여가정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더글러스의 청년시절로 되돌아가고, 그 후 훨씬 더 먼 시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묘사했던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기로 용해된다. 더글러스는 죽은 지 20년이 된 여가정교사를 아주 오래 전에 알고 있었고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의 일이었다. 그는 독자들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액자 형식의 시각으로 그녀의 의식을 전개한다. 즉,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가 그 원고를 썼는가?”(34)라는 질문을 채 하기도 전에 막 바로 “가장 아름다운 필체로 쓰여진”(34) 그녀의 원고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그녀를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고유한 고상함과 예의범절의 자태를 지닌 옛날의 전형적인 여가정교사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녀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행복하게 몰입한다는 점에서 신성한 여가정교사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비쳐진다. 그러므로 그녀는 어떤 신사를 사랑하게 된 허구적인 여가정교사를 기다려 왔던 독자들에게는 낭만적인 보상이 되기도 한다.

그녀는 무척이나 매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나보다 열 살이나 손위였지요. 누이동생의 가정교사였죠. 가정교사치고 그 분처럼 기분 좋은 분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여자였을 겁니다. . . . 나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녔고, 2학년 여름방학 때 내려와 보니 그 가정교사가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 . .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분이 정말 머리가 좋고 기분 좋은 분이었고 나는 정말 그 분을 좋아 했습니다. 그 분도 나를 무척 좋아하던 생각을 하면 오늘까지도 마음이 흐뭇해짐을 느낍니다. (35)

더글러스는 자신의 이야기가 그것을 확증 시켜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어떤 청중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블라이에서 가정교사는 이미 사랑에 빠져 버렸다고 예단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럼 그 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군요.”  
그는 처음으로, 비로소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날카롭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그 얘기를 끝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내가 안다는 것을 그 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먼저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36)

많은 여가정교사 주인공들처럼, 그녀의 신분은 “더글러스의 옛 여자 친구로 어느 가난한 시골 목사의 막내딸이었다. 처음으로 허둥지둥 런던으로 올라와 이미 간단한 서신 왕래가 조금 있었던 주인을 직접 면접하여”(40) 가정교사가 되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어린 소녀이다. 그녀의 궁핍한 처지는 이야기의 초반부인 4장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인 나는 그 당시 우리 집에서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성가신 편지를 여러 장 받고 있었다.”(80)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녀를 채용하려고 하는 주인도 역시, “한창 나이인데도 아직 독신으로 있

는 신사였으며 꿈에서나 혹은 옛날 소설 속에서가 아니면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당당한 신사이다. 또한 여성들에게 호감이 가는 친숙한 유형의 인물인 동시에 미남인데다 상류 계층의 사치스러운 취미를 즐기고 여성에 대한 매력적인 태도를 지닌 완벽할 정도의 신사이다”(40-41). 따라서 여가정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할리가의 신사인 주인은 현재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존재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아내가 없으면서도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그 짐을 여가정교사에게 떠맡기는 상태로 보아 그의 과거에는 어쩌면 무엇인가 어둡고도 신비한 것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준다. 특히 아이들의 출생 유래에 대한 의구심이 아주 끈질기고 확연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일즈와 플로라가 집주인의 자녀들이라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더글러스는 마일즈와 플로라에 대해서 “인도에 있던 양친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어린 조카와 질녀를 양육하게 되었던 것이고 2년 전에 죽은 동생의 소생들이었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나이 — 어린애를 길러 본 경험도 없거니와 털끝만큼의 참을성도 없었던 독신자 — 에게는, 그야말로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었다.”(41)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임 여가정교사인 제셀의 아이들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비록 도덕성을 허물어 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억측일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주인의 정체가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릴만한 충분한 남성적 속성 또한 잠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그가 실제로 죽은 여가정교사에 대해 영주의 권리를 행사했든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는 가장 특권적이고 음흉한 속성을 지닌 남성의 지위와 권능을 지니고 있다. 그는 현재의 여가정교사에게 있어서도 성적인 매력과 부의 상징으로 간주 된다. 그러나 그는 여가정교사에 대한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일체 표출하지 않는다. 그는 보통의 가정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급료를 흔쾌히 지

불하고 자신이 감당해야할 모든 책무를 이 어리고 여린 가정교사에게 모두 떠넘기고자 한다.

“그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다 신경질적이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의무와 적적한 환경을 과연 감당해 낼 수가 있을까? 정말 외로운 생활이 환상처럼 떠올랐다.

그 여자는 망설이기도 하고 쾅기기도 하여 이틀 동안이나 의논도 해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제시된 월급이 그 여자의 많지 않은 예상액을 훨씬 넘고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를 만나보고서는 일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맡았다.” (44)

더글러스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여가정교사들이 당하게 되는 일들을 흔하게 들어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근사한 젊은이, 즉 주인이 행한 유혹과 그 도덕성의 결말을 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실제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 속된 기대감이 좌절된다. 즉, 주인이 그녀를 만나본 것은 단 두 번뿐이라고 더글러스가 얘기함으로써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여성 청자들 중의 한 명이 크게 실망을 하고 만다. 주인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만남에서 “그녀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잠시 무거운 짐을 벗은 기쁨에 그 여자의 손까지 쥐고 즐거워하며 희생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는 뜻을 표했다. 그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보답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흐뭇했다”(45). 결국 그녀는 그에게 굴복하고 만 것이다. 그러자 여가정교사 소설을 많이 읽어 본 적이 있는 청자가 이 말을 듣고서 “그녀가 받은 보상이 겨우 그것 밖에 없나?”(45)라고 반문한다. 이 말에 더글러스는 그 독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라도 하듯 “그녀는 그 후 다시 그이를 만나지 못했다”(45)고 단언한다.

『나사의 회전』은 길이로 볼 때, 그리 짧지 않은 중편에 가까운 이야기이지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가정교사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되

는 것이 없다. 단지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밝혀진다. 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이야기의 선사구조 및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일 수 있다. 즉 여가정교사가 미혼임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빅토리아조 여가정교사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의 성적 욕구의 분출마저 통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 또한 그런 욕구를 억제해야만 했다. 주인과 여가정교사와의 의사소통을 엄격히 제한시킨 것은 주인 남자에 대한 여가정교사의 이성적 욕구가 억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여가정교사는 주인 남성에게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억제하며 단지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꿈꿀 수 밖에 없게 된다. 당대의 여가정교사들이 정말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야 했듯이 이 작품 속의 여가정교사 역시 블라이에서 아이들의 가족 구성원 어느 누구도 만나지도 못하고 동료 또한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 절대적인 외로움을 겪게 된다.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그녀는 가정부인 그로스와의 관계를 애정적이면서 의존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녀의 환상은 결국 그로스와의 같은 평범한 하녀는 도저히 공유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녀는 고립에서 오는 고통을 더 한층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블라이라는 미지의 성으로 들어서며 그녀는 이미 로맨스에 젖어 있는 모습을 그려 본다. 처음부터 블라이는 “넓고 깨끗한 현관, 활짝 열어젖힌 창문, 산뜻한 커튼, 밖을 내다보고 있는 하녀들의 모습들이 가장 즐거운 인상이 되어 . . . 주위의 경치는 웅장한 맛이 있었고, 초라한 집에 비하면 어딘지 무척 남다른 느낌을 풍기는 광경”(47)으로서 그녀에게 다가온다. 이 저택은 “장미 빛깔의 요정이 사는 로맨스의 옛 성(城), 어린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이야기책이나, 동화책의 그림”(54)이 되어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가난했던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행복이 가득 넘칠 로맨스의 궁전이 된다. 그리고 하녀 그로스는 마치 예전의 안주인이었던 것처럼 혹은 기쁨이 있는 손님처럼 그녀

를 맞이한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그녀가 훗날 주인양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후하게 대접받고 있는 분위기에 감동되어 “머리에서 발치까지 . . . 이런 모든 것이 귀엽고 사랑스런 제자의 그 뛰어난 매력과 함께 뜻밖에 굴러들어온 황재”(7)와도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녀는 그로스에게 런던에서 있었던 사실을 털어놓게 되고, 그로스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있어서 꿈에도 그리운 사람은 바로 주인 양반이며,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열정적인 사랑을 고백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유령의 모습을 한 퀴트를 본다.

그것이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첫 번째는 기나긴 6월 어느 날 해질 무렵 내가 숲에서 나와 저택이 보이는 곳에서 이르러 흠칫 놀라 발을 멈추었을 때였다. 그것이 바로 그 곳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잔디밭 저쪽 높이 탑 맨 꼭대기에 서 있었던 것이다. . . . 내가 얼떨결에 상상했던 그 사람은 아니었다. . . . 외딴 곳에 나타난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나이란, 혼자 자라난 젊은 여자에게는 당연히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나와 맞서 있는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확실히 알았지만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던 사람의 환상은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도 전혀 닮지 않은 낯선 사나이였다. 할리 가에서 만나 본 사람도 아니었으며 다른 어디서도 통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나이였다. (69-70)

이토록 꿈에 그리던 남자 대신에 망령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녀의 낭만적 기대감을 좌절 시키는 것은 제임스가 자신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을 어두운 측면으로 반전시키는 그만의 특유한 투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스는 하인이었던 퀴트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퀴트가 주인의 옷을 걸쳐 입은 그의 투사체이며, 주인의 특권을 누리는데 매우 익숙하고 전임 여자가정교사와는 아무런 제약이나 거리낌이 없이 왕래하였기 때문이다.

“신사라고?” 아주머니는 놀라, 혈떡거리며 중얼거렸다. “그 자가 신사라고?” . . .

“그리고 입은 옷은?” “다른 사람 옷을 비어 입은 것 같았어요. 말끔한 옷이었지만 자기 옷이 아니었어요.”

그로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신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이 집 주인 양반의 옷이랍니다!”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다면 아주머닌 그 사람을 아세요?”

아주머니는 한동안 머무적거리다가 소리를 질렀다. “퀀트야!”

“퀀트라뇨?” “피터 퀀트. 그 자야. 주인님이 이 곳에 오셨을 때 데리고 있던 시종이었죠.” (90-91)

그는 냉담한 유혹자의 모습을 지닌 주인이며, 그로스가 기억하는 바로는, 귀부인이었던 제셀을 아마도 타락시켰을지도 모르는 존재이다. 주인공인 여가정교사가 주인을 그의 투사체인 퀀트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가정교사가 어딘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인을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로 여길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녀는 그가 맡긴 일을 충직하게 실행해냄으로써 그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여태껏 품어 왔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잘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설령 단 두 차례의 만남 속에서 그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꼬옥 움켜쥔 적은 있으나, 사실 그는 그녀에게 추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이미 자신에 대한 성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퀀트라는 망령이 그녀에게 투사체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성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일는지도 모른다. 또한 예전의 가정교사 역시 할리가에서 그 고용주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고용주의 저택에서 일을 해오면서 여러 정황들을 알고 있었던 그로스가 언급한 다음의 말을 통해서 이 새로 부임한 가정교사가 집주인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럼요. 그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걸요, 열중하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한 마디 덧붙여 보고 싶었던 충동을 느낀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저는 너무 쉽사리 열중하고 마는 성질인걸요. 런던에서도 그랬어요.” 이 말뜻을 알아챘을 때의 그로스 아주머니의 거리낌 없는 표정은 아직도 눈앞에 훤히 그릴 수 있다. “할리에서 말이죠?”

“그럼요. 할리에서요”

“선생님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52)

또한, 더글러스는 제셀이 죽기 전까지 애들을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히 돌봐주었으며 우러러 볼만한 매우 훌륭한 여인이었다고 그녀에 대한 인상을 밝히고 있다.

.....애들을 위해서 애초에는 젊은 부인이 한 분 와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부인은 죽기 전까진 애들을 위해서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히 돌봐 주고 있었으며, 우러러 볼 만한 매우 훌륭한 부인이었다. 그래 그 분이 죽고 난 뒤 매우 당황하게 되어 어린 마일즈를 학교에 보낼 도리밖에 없었다. (43)

그리고 현재의 가정교사가 예전의 가정교사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로스는 그녀는 젊고 어여쁜 분이며 미모는 현재의 가정교사와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귀부인의 모습을 한 여성이라고 말한다(61).

이와 같은 모습들은 당시 여가정교사들이 남성들의 성적인 욕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글러스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들 중의 한사람은 즉각적으로 예전의 가정교사가 죽게 된 원인이 ‘체면’(respectability)때문은 아니었는지를 물어본다. ‘체면’에는 넉지시 자책과 수치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녀의 죽음의 원인은 그녀 자신을 포함한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의 부도덕성의 결과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제셀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설명의 여지가 없는 또 하나의 형벌인 것이다. 여기에는 빅토리아 시대 여가정교사들의 도덕적 기대치가 암시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더글러스의 대답이 이런 의미를 던지시 비추고 있다.

누구인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전에 있던 가정교사는 무엇 때문에 죽었지요? 체면 때문인가요?”

더글러스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어차피 알게 될 터이니 미리 말하지는 마세요.”

“미안해요. 난 또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죠.” “그 여자의 후임이 되는 가정교사인 나로서는 알고 싶어요. 그 일이 생명에 위험을 가져오는지—” 하고 내가 입을 떼기가 바쁘게,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43)

여가정교사 고유의 덕성인 체면(respectability)이 과연 제셀에게는 해악을 끼치지 않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의 가정교사에게도 그것이 하나의 고통스런 무거운 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일 제셀의 죽음의 원인이 체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면 체면의 원인은 바로 성도덕을 어겨서 저지른 임신 때문이 아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제셀이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를 분만하다가 죽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가정교사는 제셀의 죽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그로스에게 의심적인 말투로 “이젠 말해 줘야겠어요. 그 여자는 뭇 뺨에 죽었는지를? 어서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112)라고 쿤트와 제셀이 살아 있을 당시 있었던 일과 제셀이 죽은 이유를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 한다. 이에 대해 그로스도 제셀과 쿤트는 서로 신분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덧붙인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뿐이겠어요?”

“신분이 서로 달랐는데도?”

“그럼요. 계급이고, 신분이고, 다 달랐어요.” 아주머니는 슬픈 듯이 말했다.

“그 여자는 숙녀였죠.”

나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수궁되는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럼요. 그분은 틀림없이 숙녀였겠지요.”

“그런데 그 사나이는 그야말로 쌍놈이었지요.” 그로스 아주머니는 말했다.

(112)

제셀은 상류층 귀부인이었으나 품위가 없는 여성이었고 퀴트는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제멋대로 구는 그야말로 저질의 남성이었다. 가정교사는 퀴트가 틀림없이 예전의 가정교사인 제셀에게도 제멋대로 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제셀도 원한 것이 틀림없다”(113)고 단정한다. 이에 그로스는 긍정적인 태도로 “그래서 제셀은 그만큼 죄 값을 치른 셈”(113)이라고 반응하며 “그렇게 상상한 이유는 무서운 일 때문이었다.”(114)고 단언한다.

만일 그로스가 상상하는 것처럼 제셀이 떠난 이유가 퀴트의 아이를 임신한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여가정교사 제셀이 당시대 여가정교사에게 요구되던 도덕성, 즉 성도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타락의 길을 자초한 것이다. 더욱이 상층계급이 아닌 하층계급에 속한 퀴트와 관계를 맺음으로서 그녀는 성도덕은 물론 사회적 도덕성까지 위배하게 된 것이다.

제셀이 퀴트와의 관계로 여가정교사로서의 도덕성을 위배했다면 현재의 여가정교사는 오히려 도덕성을 해칠 우려가 많다고 하겠다. 퀴트를 주인의 잠재적 투자체로 보는 데서 이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퀴트는 유한계급, 즉 상층 계급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는 주인의 옷을 걸쳐 입은 채 그 신분을 가장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의 특권을 가장한 채로 남성의 흉포한 모습과 주인이 속한 상층계층이 지니고 있는 지배 권력을 표

현하고 있다. 즉, 어린 마일즈가 주인의 투사체로 나타나고 있다. 마일즈는 비록 주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주인의 재단사가 만든 옷을 입고 있다. 마일즈의 백부인 주인에게 온통 넋을 잃어버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가정교사는 그 어린 신사인 마일즈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게 된다.

마일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에 대한 일종의 격렬한 애정이 샘솟아 지금까지의 온갖 잡념은 그가 나타남으로써 짝 씻어지고 말았다.”(64)고 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은 그녀가 거역할 수 없었던 주인의 당당한 매력과 같은 남성적 아름다움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성적 매력은 여가정교사가 “퇴학당한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방 안의 서랍 속에 숨겨 둔 그 무서운 편지”(64) 때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정교사는 그가 학교에서 퇴학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처럼 순진하고 사랑스런 아이에게 그와 같은 누명을 씌우다니! 도저히 말이 안 될 일이었다.”(64)며 마일즈를 옹호한다.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직도 깊은 안개 속에 덮여 있다”(78)라고 그녀가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주인 남자에 대한 자신의 환상과 기대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제임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공백(blank)”으로 처리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의 분석에서 나는 무슨 의미를 부여했던가? . . . 내 자신에게 말했다. . . . 독자들이 일반적인 악의 문제를 긴장된 시각으로 봄으로써 그는 자신 고유의 경험, 자신 고유의 상상력, (아이들에 대한) 그만의 동정심, 그리고 (거짓된 친구들에 대한) 공포와 같은 특별한 요소들로 자신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문제에 대한 한 치의 부연설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들은 모두가 공백상태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그를 다소 환상적인 모습으로 읽혀져야 할 긴장된 공포, 연민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sup>38)</sup>

엘만(Richard Ellmann)은 “빅토리아 시대 독자들은 그 공백을 동성애적 행위로 간주하여 채워 넣을 지도 모른다.”<sup>39)</sup>고 해석한다. 즉 쿤트와 마일즈의 만남, 제셀과 플로라의 만남을 동성애 관계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마일즈가 성적 혹은 다른 위험의 일반적인 원인 제공자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여가정교사 자신에게도 성적 위험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그로스가 웃으면서 마치 가정교사가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듯이 내뱉은 다음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애들은 망나니짓을 할 만큼 기운이 센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다음 아주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타락이라고요?” 나의 이 말에 그로스 아주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나는 설명을 보냈다. “즉 다른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말이죠.”

그제야 아주머니는 나의 말뜻을 알아듣고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을 타락시킬까봐 걱정이 되요?” 아주머니는 대답하게 던진 익살이었다. (60-61)

사실, 그로스가 내던진 질문과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가정교사는 자신이 스스로 주인의 화신인 마일즈라는 어린 고용주의 성욕의 대상이 되어 타락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어린아이인 마일즈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곧 그의 백부인 주인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성인과 어린아이 사이의 성적인 사랑은 금기 사랑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부류들 간의 사랑보다 훨씬 사악한 것이기 때

38) Henry James, *Literary Criticism: French Writers, Other European Writers, The Preface to the New York Edition*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1984), p. 1188.

39) Richard Ellmann, “A Late Victorian Love Affair,”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Aug. 4, 1977: 6-7.

문이다. 그리고 제셀과 쿼트가 플로라와 마일즈를 각각 동성애적으로든 이성애적으로든지 간에, 여하간 성적으로 희롱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드러내 보이지 않는 악의 공백이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과 같다. 실제로, 당대의 회고록에 의하면 빅토리아조 중·상층 남성들은 종종 하인들이나 심지어는 여가정교사로부터 사랑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전수받곤 했다.<sup>40)</sup> 마찬가지로 마일즈에 대한 현재의 가정교사의 감정은, 비록 무의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마도 성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다. 달리 애정을 추구할 대상이 없는 가정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어린아이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한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개연성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여가정교사가 마일즈에 대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주인 남자와의 거리감을 개선 해보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그녀 자신의 감정을 마일즈를 통해 투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마일즈가 학교에서 쫓겨난 원인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야말로 천사”(80)와 같이 여기면서 그에게 완전히 매혹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때문에 그녀는 마일즈에게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굳이 묻지도 않는다. 말하자면 그녀는 사랑에 빠진 한 여성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과거를 굳이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 · · · · 그들은 도대체 나무랄 데가 없었다. 특히 마일즈에게는, 말하자면 과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 · · 그는 마음의 고통이란 조금도 받고 있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그가 실제로 털끝만한 벌도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만일 어떤 나쁜 짓을 했다면 당연히 그 흔적이 남아 나에게 반발을 했을 것

40) 이와 관련해서는, Bruce Robbins의 “Shooting Off James’s Blanks: Theory, Politics, and *The Turn of the Screw*,” *The Henry James Review* 5, no. 3 (Spring 1984), 193-9. 에 잘 나타나 있다.

이고 결국 나는 그 흔적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는 그야말로 천사와도 같았다. (79-80)

다른 여가정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학습지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오히려 마일즈를 통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쾌락주의를 그녀 스스로 학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엄격한 학습지도의 문제에는 등을 돌린 채 그 때까지의 자신의 군색한 생활에서는 도저히 꿈도 꾸어 보지 못했던 낭만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자유롭게 만끽하고 있다.

.....나는 몰아와 연민의 큰 물결 위에 초연히 솟아오르고 있었다. 겨우 세상을 알게 된 마일즈의 교육쯤은 쉽사리 다룰 수 있으리라 간단히 생각했다. 그의 휴가가 끝나고 공부를 다시 계속할 때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지금은 기억조차 할 수 없다. ....몇 주일 동안의 수업은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공부임에 틀림없었다. 어찌 생각하면 나는 그때 처음으로 공간과 대기와 자유를, 그리고 여름의 모든 음악과 자연의 온갖 신비를 알았던 것이다. ....나의 신중함과 꽤 훌륭한 체통과 예절로써 내가 그 간청을 들어 주었던 그 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그 분이 이것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요컨대 나 자신은 매우 훌륭한 젊은 여자라고 자부하였다. (66-67)

이토록 그녀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일즈로부터 사랑을 배워 나가고 있다. 결국 여가정교사가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 지도를 받는 아이들의 학습능력보다 윤리와 도덕적 특성에 관한 진실, 즉 그들 인격에 관한 진실이다. 그녀는 천사와도 같은 아름다움과 완벽한 행동 사이에 공존하고 있는 악마의 실체를 인지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본다면 어찌면 옳게 간파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은 올바른 것일지도 모른다. 목사의 딸인 그녀는 ‘악마’라는 단어에 더 친숙

해 있을 수 있다. 그녀는 이미 마일즈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김과 동시에 “전통적인 악마로 묘사되는 빨간 머리의 쿼트”에 의해 악령에 들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sup>41)</sup> 그녀는 마일즈가 그의 백부의 대리인인 악령 쿼트와 은밀하게 성적인 교통을 하는 것으로 의심 하고 있다.

낭만적인 성격의 여가정교사는 자신의 고민과 고충을 주인남자에게 말할 수 없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버림받은 존재로 느끼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 유혹되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느끼며, 이에 대해 전 가정교사인 제셀에게 동병상련을 느낀다. 이토록 주인 남자에 대한 애정과 원망을 그녀는 마일즈를 통해 투사하고 있다. 마일즈가 주인남자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은 어느 일요일 아침 마치 성인 남자와 같은 매혹적인 목소리로 물어보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마일즈는 마치 그의 백부와 같은 당당한 성인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것과 그들의 놀랄 만한 복종심은 숨기고 싶은 그 기괴한 사실을 속일 특수한 가장이었다. 마일즈는 백부의 재봉사가 마련한 나들이옷을 입고 있었다. ... 마일즈의 어리지만 위풍당당한 모습, 마일즈의 독립심이 강한 깨끗한 성질이니, 사내다움이니, 훌륭한 집안이니 하는 것이 또렷이 나타나 있었다. 그래서 만일 마일즈가 자유를 위하여 갑자기 반기를 든다면 나는 어떻게 하여 저항할 것인가 문득 생각하기도 하였다. . . . . “내 사랑!” 하고 그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전 언제 학교로 가게 되나요?” . . . 가정교사에게는 마치 장미꽃을 내던지는 듯이 억양 있는 말로 내던지는 것이었다. (172-173).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마일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대체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가 그녀에게 “내 사랑(my dear)” 이라는

41) Katherine Anne Porter, Allen Tate, 그리고 Mark Van Doren은 Quint가 전설적인 악마의 육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A Casebook on Henry James's "The Turn of the Screw,"* ed. Gerald Willen (New York: Thomas Crowell Co., 1934), pp. 163-164.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뭐라고 답해야 하나 하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는 암시적이며 뭐라고 형언 할 수 없는 미소를 띠면서 “내 사랑, 당신도 아시다시피 한 남자가 늘 한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174) 싫증이 난다는 투로 말을 시작한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마음 한 구석에 담아두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던 여가정교사는 그 말에 오히려 “참으로 경의를 표하면서도 마음이 후련해짐을 느끼면서”(174) 마일즈가 마치 자신에게 싫증을 느껴서 연인을 바꾸기를 원하는 당당한 남성이나 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러자 그녀의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재빨리 간파한 그는 “지위에 알맞은 앞길이 있는 사내아이”(174)임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그 말에 가정교사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174)을 느낀다.

그렇다면 여가정교사의 지도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마일즈의 노력이 그녀에게 불행이나 다름없는 ‘고통’처럼 느껴지는 이유와, 또한 그녀가 자기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주인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일즈가 눈치 챘을까봐 걱정”(174)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마일즈의 당당함은 “백부와 의논해서 내가 왜 학교에 가지 못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선생님과 함께 이런 어린애답지 않은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요.” (180)라고 협박하는 장면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마일즈는 학교에서 추방당한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 백부에게 알려서 그를 오게 하겠노라”(178)고 말하면서 가정교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마일즈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가정교사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아마도 자신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여가정교사가 지도를 소홀히 하여 그러한 부도덕한 일이 초래된 것으로 백부가 오해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시 여가정교사의 위치로 보아 그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하게 되어 결국 그녀를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 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토록 마일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도덕적으로 다루기 힘든 강한 성인과 같은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마일즈가 원하는 것은 단지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여가정교사의 첫사랑 연애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의 일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177) 당당한 성인의 삶을 찾아가려는 것이다.

마일즈가 말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의미하는 것은 여가정교사가 배제된 세상에서도 그럭저럭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 성인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가정교사를 블라이의 안주인으로 그냥 남겨둔 채 결국 상층 부류의 연인을 찾아 원래 자신이 속한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일즈에게 있어서 지금의 여가정교사는 즐기기에는 아주 적합한 여성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결혼 대상은 아니다. 여가정교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마일즈가 학교에서 퇴학당한 의문점을 정리하기 위해 주인양반이 혹시나 오게 되는 사태가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마 그가 오더라도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여 마일즈와 플로라를 가르치느라고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척 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가 마일즈의 태도와 반응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녀가 마일즈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이 부적절한 일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장차 그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마일즈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그를 통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와 신분상승의 기쁨을 누려야 할 여가정교사에게 있어서는 틀림없이 최악의 사태나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에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낀 여가정교사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만 하면 이 고통에 쉽사리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180)이라 생각한다.

대충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자 집으로 서둘러 돌아와 계단 제일 밑바닥에 앉아 기진맥진하고 있었던 여가정교사는 “열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청청한 대낮의 햇볕을 받으며 책상 앞에 앉아 애인에게 편지를 꾸꾸대며 쓰느라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우울하고도 무관심한 태도로 수치에 찬 비극적인 모습의 비열한 전임자 제셀의 유령을 본다.”(182-183) 그녀는 제셀의 편지를 받을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거나 편지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런던에 있는 주인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절망이 교차되는 바로 이 순간에 제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은 여가정교사가 사악한 전임자인 제셀의 절망의 의미와 본질을 현재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제셀이 아닌 현재의 여가정교사가 바로 지금 고용주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고, 제셀은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투사한 모습이며, 자신이 곧 전임자의 사악한 모습으로 회귀하여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녀는 결국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날 밤에 고용주에게 실제로 편지를 쓰려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 (189)

하지만 그녀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이끌려 촛불을 들고서 마일즈의 침실 바로 앞에 멈추어 고용주의 기품을 지닌 어린 마일즈에게 응당 유혹 당하기를 기대하듯이 서 있다. 마일즈는 쉽게 눈치라도 챌 듯이 그녀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녀가 마치 “기마대처럼 자신에게 틀림없이 달려올 것이라고 이미 생각했었다.”(190)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 즉 성적인 욕구 내지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한 자신의 위치 보존이라는 계획을 그가 간파 하지 않았는지 내심 불안해한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손을 잡고 침대 귀퉁이에 앉아서 이를 알아보기나 하려는 듯 “마일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191) 물어본다. 이에 대해서 그는 그녀를 마치 연인으로 여기는 듯한 목소리와 계산된 어조로 “그야 물론, 바로 내 사랑,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죠.”(191)라고 응답한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런 것을 하면 못써요.”(191)라고 나무라면서 잠을 자라고 유도

한다. 그러자 마일즈는 “그런데 말이죠, 전 우리들 사이의 그 이상스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191)라고 하면서 그녀를 계속해서 자신 곁에 붙들어 둔다. 이 말에 가정교사는 그 이상한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상스런 일이라니 무슨 일 말이야, 마일즈?”(191)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마일즈는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치는 방법이나,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191)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상스런 일(queer business)’과, ‘그 나머지 일(all the rest)’들은 무엇을 말함인가? 이에 대해 마일즈는 단순히 “당신이 알잖아요!”(191)라고 말하면서 얼버무림으로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고조시킨다.

똑같이 동등한 이성적인 존재, 즉 성인으로 대우해주시기를 마일즈로부터 은근히 강요당하고 있는 그녀는 그가 계속 이렇게 되기를 원해왔으며 또 지금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를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이 곳 블라이에서의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마일즈는 오히려 “이곳을 떠나고 싶다”(193)며 그 이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193)이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성인이 다된 “한 남자로서 원하는 것을 당신은 알잖아요”(194)라고 말하는 마일즈의 새로운 세계는 다름이 아닌 성숙한 남녀 관계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녀는 마일즈가 과거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무감에서라도 자기 자신이 그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마일즈를 품에 안고서 위로하며, 마일즈에게 입맞춤을 한다. 가정교사는 그의 곁에서 더 오래도록 성적인 유희를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마일즈는 마치 오래 사귀어 싫증이 나버린 아가씨 취급하듯 그녀의 욕구를 하나의 익살스러운 응석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놀라울 만큼 찬찬한 태도로, 탓할 수 없는 명랑한 기분으로 말했

다. . . . .이젠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자, 그만 몸과 마음은 푸루루 풀리고 마는 것이었다. . . . .“귀여운 마일즈!” 하면서. 내가 얼굴을 갖다 대며 키스를 해도 그는 기분 좋게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뭘? 이 할망구 같으니.”

“마일즈는 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니?” . . . . .“오늘 아침에 말했잖아요.” “너에게 성가시게 굴지 말아 달라는 그 얘기 말이냐?”

그는 이제야 자기의 기분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부드럽게 “그래요. 제발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하고 대답했다. (195-196)

그러나 그녀는 지금 돌아서면 그를 잃어버리는 셈이라는 생각이 들어 흔들리는 의식 속에 그를 완전하게 알고 싶은 욕망에 더욱 사로잡힌다. 그녀는 마일즈의 침대 곁으로 털썩 다가가 앉으며 그에게 “블라이로 오기 전에 학교에서 벌어진 일”(196)에 대해서 숨김없이 털어놓을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흔들리는 의식 속에서 그를 사로잡을 기회를 다시 한 번 엿보고 있었다.”(196) 그것은 또한 마일즈를 괴롭히는 퀴트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이기도 하다. 바로 그 순간, 촛불이 꺼진다. 촛불을 끈 사람은 퀴트의 힘도 아니고, 둘만의 열정적인 사랑의 힘 때문도 아닌 다른 아닌 마일즈였다. 그는 마치 자신이 가정교사의 애인인 것처럼 사랑을 위하여 방을 어둡게 했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다.

. . . . .그러자 나의 애걸복걸한 호소에 대한 대답이 그 즉시 닥쳐왔다. 그러나 그것은 일진광풍과 냉기, 얼어붙을 것 같은 찬 바람, 마치 폭풍 속에서 창문이라도 와장창 넘어뜨리듯이 방 안이 뒤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대답이었다. 소년은 간간하고 높은 소리로 뭐라고 부르짖었지만 주위의 다른 소리에 빨려들어 바로 곁에 있었던 나에게조차 환희의 소리인지 공포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방 안에 캄캄한 것을 알았다. 잠시 동안 우리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이윽고 돌아다보니 쳐 놓은 커튼도 흔들리지 않고 창문도 단단히 닫혀 있었다. “촛불이 꺼졌군 그래!” 하고는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켜어요, 선생님” 하고 마일즈는 말했다. (197)

이러한 일이 있는 후, 여가정교사는 호숫가에서 “정말로 무섭게 딱딱한 표정을 짓고서 품이 없어져 평범하고 꼴사나운 아이로 떨어진”(216) 어린 플로라와의 충격적인 만남을 맞이한다.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이야, 난 싫어요! “날 데리고 가줘, 선생님께서부터 나를 떼어가 줘!”(217)라면서 플로라가 악을 부득부득 써가며 광란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는 제젤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여가정교사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플로라를 제젤이라는 악령으로부터 구제하지 못한다는 무능력을 깨닫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슬픈 듯이 고개를 흔들며 보았다. “지금까지는 다소 의심도 있었지만 이젠 다 없어지고 말았어. 나도 지금까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 왔지만, 이젠 내 주위는 무서운 일들뿐이야. 물론 나는 플로라를 빼앗기고 말았어. 나는 플로라를 막으려 했지만, 플로라는 저것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말하고선 나는 또 호수 건너 흉측한 망령을 돌아보았다. “지극히 간단히, 마음대로 저 여자와 만났었군. 나는 최선을 다해 왔건만, 이미 플로라를 영영 뺏기고 말았구나.” (217)

여기서, 마일즈의 역할에 문혀 간과해버리기 쉬운 플로라의 역할에 대한 제임스의 진정한 의도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별적인 시각에서 볼 때, 구조상 마일즈는 남성으로서 가정교사를 타락시키는 원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플로라는 가정교사와 동등한 여성으로서 여성의 남성성에 의한 타락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임스는 빅토리아 시대 여가정교사를 비롯한 모든 여성의 책임감과 도덕성의 의미를 더

한층 강조하고 있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아 『나사의 회전』 속의 여가정교사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아이는 플로라였고, 마일즈는 단지 방학 기간 동안에만 돌보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취학 연령의 남자 아이인 마일즈를 떠맡게 되는 책임을 지니게 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마일즈가 학교에서 추방당한 사건 때문이다. 가정교사의 강박관념은 블라이에서 마일즈와 쿤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일즈가 학교에서 저질렀던 규칙 위반에 관한 일들과도 새롭게 관련을 맺고 있다. 더 나아가, 『나사의 회전』은 한 아이가 아닌 두 명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유령들과 더불어 가정교사와 고용주와의 세밀한 관계를 굴절시키는 이중성에 의해서 더한 의미를 띠게 된다.

플로라는 “참으로 기묘하게도 매우 솔직하고 대담하게 자기의 수줍음을 그대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스런 의식은 털끝만큼도 나타내지 않을뿐더러, 마치 라파엘이 그린 성스런 아이처럼 깊고 잔잔하고 고운 태도를 지니고 있는”(50-51) 완벽한 순결의 아름다운 꽃이다. 그녀는 곧 훌륭한 여가정교사의 청결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존재이다. 여가정교사와 주인의 반대편에 마일즈가 쿤트와 대조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플로라는 제셀과 대조적인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정교사는 마일즈의 타락을 의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로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140)며 플로라의 진실성에 대한 타락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의 여가정교사나 전임 여가정교사의 타락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플로라임을 알 수가 있다. 즉, 플로라의 위치가 여가정교사나 혹은 제셀의 위치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10장에서 플로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가정교사가 침실 창문을 통해서 정원 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여가정교사는 플로라가 제셀과의 영적인 교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로라의

침대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리로 달려간다. 만일, 그 어두운 밤 창 밖에서 보여 지고 있는 인물이 실제로 여가정교사라고 한다면, 제셀과 동일시되는 사람은 바로 그녀, 즉 여가정교사가 되는 셈이며, 플로라가 감시하고 책망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가정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덧문 뒤에서 장미꽃처럼 정말 순진한 모습으로 발갛게 드러낸 다리며 곱슬곱슬 윤이 흐르는 금발이며, 자그마한 잠옷을 걸친 모습이며 참으로 어린이다운 모습인 플로라가 오히려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여가정교사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를 힐문하며 비난하고 있다.” (138-139)

여가정교사는 자신이 보고 있는 아조프(Azof) 호수 건너편에 있는 제셀의 명령을 플로라도 본다고 주장함으로써 플로라의 시각을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한다. 19장에서 그녀는 다시 그 호숫가로 가서 플로라가 배를 타고 물웅덩이를 가로질러 나아가 반대편 쪽 풀밭에 서 있는 모습을 본다. 어린아이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가정교사의 눈에도 “그러한 순간에는 그 애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아주 나이든 여자처럼 보인다.”(206) 그리고 플로라가 제셀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여가정교사의 의견에 대해서 그로스는 여처구니가 없는 생트집이라고 반박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가정교사는 “플로라의 얼굴에서 어린이다운 아름다움이 갑자기 사라져 정말로 무섭고 품이 없어져 평범하고 꼴사나운 아이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하느님의 용서를 빌고 있었다.”(216)고 강변한다. 그 이후, 20장에서는 그로스조차 플로라의 태도를 보고 “그 애는 온통 늙어 버렸어요.”(221)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플로라의 모습들은 곧 예전에 지냈던 여가정교사 자신의 어린 시절 순수함이 사라져 이제는 궁극적인 성인의 위치로 변화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플로라는, 잠재적으로 볼 때, 이전 가정교사인 제셀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정교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플로라는 타락한 성인만이 내뱉을 수 있는 “끔찍스러운 얘기를! 정말 몹서리나는 얘기

를! 정말 지독하고 무서운 말씨”(229)들을 그로스에게 서슴없이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제셀은 여가정교사 자신에 대한 암시적 광기의 한 단면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쯤은 지금의 여가정교사가 광기에 찬 여성이 아닐까하고 의심을 해보게 된다. 여가정교사가 당시 빅토리아인들이 타락에 대한 형벌로 믿었던 정신착란을 일으켜 마일즈에게 미친 짓거리를 했다고 인정한 것처럼, 플로라는 “몸에 몹시 열이 오르고 무슨 큰 병을 앓을 것 같다. 그것은 전 가정교사 때문이 아니고, 지금의 가정교사 때문인 것”(220)이다. 더글러스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여가정교사가 잔인하고 제정신이 아닌 존재로 보이고 그녀의 자아는 분리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제임스가 블라이에서 처음 느끼는 그녀의 심정을 광기에 찬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블라이의 다락방에 있는 미친 여자가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에 숨겨진 여성의 실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임 가정교사인 잔인하고 광기에 찬 제셀의 환영은 상처받은 그녀의 숨겨진 자아를 투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플로라는 그로스와 함께 런던을 향하여 블라이를 떠나고 가정교사는 ‘이상야릇한 그 짓’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젠 우리 둘만 남았군요.”(240)라고 말하면서 마일즈에게 자신의 위엄과 지위를 자유롭게 행사하려고 한다. 그 순간 여가정교사는 “마치 신혼여행을 간 젊은 부부가 여관의 식모 앞에서 수줍어 서로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236) 마치 주인을 향한 사랑과 그와의 결혼이 실현된 듯한 환상에 젖는다. 어색한 둘 만의 상황에서 마일즈가 “선생님, 지금의 태도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외롭지만 누구보다 외로운 건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에 두지는 마세요.”(243)라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제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는 “동무로서의 권리는 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마일즈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좋고, 마일즈를 위해서 더 훌

를 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 머무를 것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블라이에 머물러 왔지”(244)라고 고백한다.

마일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조해 하면서도 자신을 억제하고 있으며 전보다 훨씬 더 냉정한 상태로 변모한다.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서슴없이 할 터이니 무엇인가를 말하기만을 여가정교사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다. 사실 이것이 여가정교사가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온 목적이며 이를 추궁하는 여가정교사의 압력은 대단하다. 그녀는 편지를 갖고 있고 고용주에게 그 편지를 공개하겠다고 추궁하며 마일즈를 자신의 품속으로 껴안는다. 그러자 마일즈는 백부에게 물어보라고 버티다가 결국 그녀의 집요한 추궁을 당해내지 못하여 학교에서 했던 일들에 관하여 모든 것을 가정교사에게 모두 털어놓는다. 그리고는 자신이 말했던 것에 대한 비참함을 느낀다. 여가정교사는 더욱 더 마일즈를 추궁한다. 결국 마일즈는 쿤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의 조그만 심장은 고통을 멈추어 버리고 만다.” (258)

여가정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면 거룩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자신의 온몸을 내맡긴 채 자신이 떠맡은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을 위협하는 악의 대행자들과 분연히 맞서 싸우고 있다. 그녀는 주인과 결혼하여 신분상승의 기쁨을 누리는데 존재가 아니라 악과 맞서 싸우는 마치 여기사와 같은 존재로 비쳐진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내 마음을 잘 그려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당시 비상한 영웅주의를 발휘하는 데서 글자 그대로 희열마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 . 나는 일찍 부모를 여윈 데다 누구보다도 귀여운 애들을 보호하고 수호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가련한 처지가 너무나도 뚜렷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고, 가슴을 에는 듯

한 깊은 애정이 마구 솟구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말하자면 한 덩어리가 되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 위험 속에 한데 굳게 뭉쳐 있었다. 그들이 의지할 곳이란 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는 또한 그들의 운명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100-101)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직감을 어렵사리 지탱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다. 그녀가 대항해야 할 악의 세력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마다 그녀의 용기는 더욱 더 살아나고 있음이 퀸트와의 세 번째 만남 이후에 그녀가 한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 · · 우리는 서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마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드러지게 무서운 것은 아니었다. 내가 무서웠던 것은 딴 일이었다. 즉, 다시 말하면 공포라는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깨끗이 자취를 감추고 그가 무섭다든지, 예사로 대면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이 나에게 전혀 없었다는 것에 나는 놀랐던 것이다. 그 이상한 순간이 지나자 공포는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나도 그것을 곧 의식하게 되었다. 내 마음 속에는 격렬하리만큼 냉혹한 자신이 우러나는 것이었다. (136)

퀸트와 제셀의 내재적인 힘으로부터 마일즈와 플로라를 구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심을 떨쳐 버리는 아름답고 상큼한 힘이 되고 있다. 결국, 그녀는 비록 플로라를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마일즈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구해냈다고 믿는다. 즉 그녀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의 사악함에 대한 근본적 속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 또한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호숫가에서 제셀의 환영을 볼 때,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플로라와 그로스에게 필사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 · ·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아이가 그것을 봤으리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나의 입장을 수호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녀를 증인으로 삼으려고 안달했다. “저기 있잖아, 그 여자가. 가엾은 플로라! 저기, 저기, 저기! 플로라 눈에도 선생님만큼 또렷이 보이잖아?” 조금 전에 나는 그로스 아주머니에게, 플로라는 어린 계집아이가 아니라 늙은 할머니 같다고 말했지만, 나에게 대한 대답에서 플로라는 양보한다거나 인정한다거나 하는 빛을 내기는커녕 단호하게 나를 거부하는 듯한 얼굴빛을 띠기 시작했다. · · · · · “아주머니 눈에는 우리들처럼 안보이세요? —안 보인다고 할 거예요? 마치 불꽃 모양으로 큰데! 잘 보아요, 네, 아주머니. 잘 보세요!” 아주머니는 내가 한 대로 그쪽을 바라보았다.—그러자 부정과 혐오, 그리고 연민의 깊은 한숨을 내뿜는 것이었다. (213-215)

악의 세력들로부터 마일즈를 구원해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가정교사는 “자신이 하는 짓이 무서워진다. 어떤 방법에서 그렇게 하건 그것은 난폭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림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 상대편인 의지할 곳도 없는 가엾은 어린아이에게 단지 야비한 생각과 죄의 관념을 뿌리박게 하는 것일 뿐이며 또한 그러한 훌륭한 어린아이를 난처한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정말로 비열한 짓이 아니겠는가?”(246)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사악하고 비열한 모습에서 더 많은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는 “이내 참 불쌍하다는 생각에서 혹시 그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깜짝 놀라고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찢찢매었다. 만일 그에게 죄가 없다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254) 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자책한다.

여가정교사의 이와 같은 독백이 암시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에 대한 동기가 근본적으로 부도덕하다면 인간이 아무리 행복한 결말을 꿈꾼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복이 인간을 거부할 것이고, 인간의 열망이 강할수록 오히려 인간을 더욱 더 타락과 파멸로 치닫게 하리라는 것이다.

## V. 결론

『나사의 회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 작품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가정교사의 주관적 서술 자체에 애매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한 직업여성인 가정교사의 일인칭 서술 시점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적 경험의 주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녀가 기술하는 내용이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끝없는 해석의 공간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가지의 해석도 충분히 정당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품에 대한 주제 해석을 19세기 말 영미문화가 지니는 역사적인 불안감들을 수용하고 표면화하기 위한 기제로 도덕성을 작용시키려는 제임스의 궁극적인 의도에서 그 근본적인 실마리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즉, 죽음과 세기말이 내포하는 갈등과 변혁의 문제와 더불어 당시의 중요한 문화적이고 철학적 과제였던 ‘여가정교사’의 사회적 지위의 문제와 성에 대한 도덕의식의 문제가 여기에 중심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임스는 이 작품 속의 여가정교사를, 초기의 여가정교사 소설 속에서 찬양의 대상이었던 종교적 순례자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진정한 도덕성의 수호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여가정교사가 쿤트와 제셀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와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 될 수 있는 이유는 19세기 말 유럽문화 내에서 통용되었던 남성주의 논리체계 내의 성 차이와 성 정체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쇼사나 펠만이 말한 것처럼 『나사의 회전』은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가 품고 있는 여러 대립적인 현상들의 투영이며 그런 현상들에 얽매인 여성의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제임스의 의도가 담겨 있는 작

품이다. 제임스는 자신이 알고 있던 사회의 이중적인 시각을 여가정교사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사회가 원했던 정결과 도덕성의 수호자는 바로 여가정교사였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42)</sup>

제임스는 여가정교사가 처한 상황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계층과 성의 정의를 위협하는 개연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 속의 가정교사는 후회와 열망이라는 가련하고 위험한 감정에 가득 사로잡힌 채 자신에게 내재된 타락의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의 여성적인 관념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의심스러운 존재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축이 여섯 개의 형상으로 쪼개지는 제임스의 이중적 투사체 기법은 바로 가정교사를 바라다보는 사회의 균열된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제임스는 고용주의 표상을 이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남성우월주의를 동경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과감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제임스 소설의 결말은 한결같이 고딕적인 요소로 끝을 맺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 자체가 귀신에 홀린 이야기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홀림은 다양한 정체성의 신비를 묘사하는 또 다른 방법에 불과하다. 결국 제임스는 고용주, 쿤트, 마일즈를 남성우월주의의 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정적이고 씩씩하지만 이제는 ‘계층적 불일치’에 의해 사회에 위험한 요소가 되어버려 상실해버린 자신의 본래의 계급에 대한 향수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가정교사, 제셀, 플로라를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결말은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비극성은 무엇보다도 마일즈가 죽고 여가정교사가 가정교사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데 있

---

42) Felman, Shoshana. "Turning the Screw of Interpretation." *Literature and Psychoanalysis: The Question of Reading: Otherwise*. Ed. Shoshana Felma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82. p. 94-207.

다. 그리고 그 원인은 여가정교사가 처음의 희망찬 포부와 기대와는 달리 쿤트와 제셀로 대립되는 유령을 경험함에서 비롯된다. 나아가 유령과 아이들이 영적, 실제적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여가정교사로 하여금 가정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이 된다.

그런데 이런 장애는 결국 가정교사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우선 남자 주인에 대한 연모의 마음,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가정적 책무, 여자 가정교사로서의 수준 높은 도덕성, 예민하고 낭만적인 성격의 성적 호기심과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여가정교사는 환영의 늪을 헤매게 된다. 여가정교사가 처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곤경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여가정교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당 시대의 여가정교사라는 특수한 직업이 지닌 보편적 지위와 역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학습지도 차원이 아닌 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결혼 적령기의 민감한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적 순결성이 요구되는 성적, 도덕적 기준이 아직은 미성숙한 젊은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로 인해 당 시대 여가정교사라는 계층의 여인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과 이상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사의 회전』에서의 여가정교사는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특히 가정교사라는 특수 계층의 사회적, 성도덕적 특성을 보편적으로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여가정교사가 사실상의 주인공이자 해설자인데도 불구하고 고유의 이름이 부여되지 않고 ‘여가정교사’라는 일반적 인칭으로 불리도록 한 것이 작가의 이러한 의도를 잘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I. Text:

James, Henry. *The Turn of the Screw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Ed., Sang-Sup Lee. Seoul: Shinasa, 1997.

### II. References:

Abrams, M. H.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5.

Barthes, Roland. *Writing Degree Zero*. Boston: Beacon Press, 1970.

Beaty, Jerome. *Jane Eyre and Genre*." *Genre* 10 (Winter 1977).

Bryant, Magaret. *The Unexpected Revolution: A Study in the History of the Education of Women and Girls in the Nineteenth Century*, *Studies in Education* (new series) 10, London: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1979.

Byjane, Nardin. "The Turn of the Screw: The Victorian Background." *Mosaic* 12.1 (1978).

Colby, Robert A. *Fiction with a Purpose: Major and Minor Nineteenth-Century Novels*. Bloomington: Indiana UP, 1968.

Combe, Andrew. *The Principles of Physiology Applied to the Preservation of Health and to the Improvement of Physical and Mental Education*. 7th Ed. New York: Fowler & Wells, 1848.

Eagleton, Terry. *Criticism and Ideology*. London: Verson, 1976.

Ellmann, Richard. "A Late Victorian Love Affair."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1977.

Ewbank, Ingastina. *Their Proper Sphere: A Study of the Brontë Sisters*

- as *Early Victorian Female Novelists*. Cambridge, Mass: Harvard UP, 1966.
- Felman, Shoshana. "Turning the Screw of Interpretation." *Literature and Psychoanalysis: The Question of Reading: Otherwise*. Ed. Shoshana Felma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82.
- Greg, W. R. "Why are Women Redundant?" *National Review* 15 (1862).
- Habegger, Alfred. *Henry James and the "Woman Business."* New York: Cambridge UP, 1989.
- Hayes, Kevin J. Ed. *Henry James: The Contemporary Review*. Cambridge: Cambridge UP, 1996.
- Hallab, Mary Y. "The Turn of the Screw Squared." *Southern Review* 13 (1977).
- Heilman, Robert. "The Freudian Reading of the *Turn of the Screw*." *Modern Language Notes* XII (November, 1984).
- Holden, Alan. "T. S. Eliot on Henry James." *PMLA* 79 (1964).
- James, Henry. "The Speech of American Women." *French Writers and American Women*. Ed. Peter Buitenhuis, Bradford, Conn: The Compass Publishing Co, 1960.
- \_\_\_\_\_. *The Art of the Novel*. Ed. R. P. Blackmu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4.
- \_\_\_\_\_. *Notes on Novelists*. London: Verso, 1976.
- \_\_\_\_\_. "The Art of Fiction" *Selected Literary Criticism: Henry James*. Ed. Morris Shapira, New York: McGraw-Hill, 1965.
- Peterson, M. Jeanne. "The Victorian Governess: Status Incongruity in the Family and Society." *Suffer and Being Still: Women in the Victorian Age*. Ed. Martha Vicinus. Bloomington: Indiana UP, 1972.
- Poovey, Mary. *Uneven Developments: the Ideological Work of Gender in*

- Mid-Victorian Engla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_\_\_\_\_, *The Story of The Governesses' Benevolent Institution*. Southwick, Sussex, England: Grange Press, 1962.
- Riche, Donald. *Eight American Authors*. Tokyo: Kenkyusha, 1956
- Rigby, Elizabeth. "Untitled Review of *Vanity Fair*, *Jane Eyre*, and the 1847 Report of the Governesses's Benevolent Institution." *Quarterly Review* 94 (1848).
- Ruskin, John. *Of Queen's Gardens*, London: Dent & Sons, 1911.
- Spencer, Herbert. *Social Statics*, New York: D. Appleton & Co., 1865.
- Thomson Patricia. *The Victorian Heroine: A Changing Ideal 1837-1873*, London and New York: Oxford UP, 1956.
- Thorberg, Raymond. "Terror Made Relevant: James's Ghost Stories," *Dalhousie Review* 47 (Summer 1967).
- West, Katherine. *Chapter of Governess: A Study of the Governess in English Fiction, 1800-1849*. London: Cohen and West, 1949.
- Winters, Yvor. "Henry James's Moral Sense." *Critics on Henry James*. 1975.
- Willen, Gerald. Ed. *A Casebook on Henry James's The Turn of the Screw*. New York: Thomas Y. Crowell, 1934.
- Veeder, William. *Henry James: The Lessons of Mas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Abstract>

The Victorian Governess's Social Status and Sexual Morality  
in *the Turn of the Screw*

Kang, Seong-Taek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oun, Jong-Min

Henry James's *The Turn of the Screw*(1898) is one of the controversial texts which raise the critical problems endlessly. The issue of the ambiguity in this work is partly due to the point of the first person narrator and partly due to its opening-ending. The critical tendencies for this novel is likely to be divided into three main approaches: Traditional approach, Psychological Approach, and Formalistic approach. Though it is true that each method has its own universal validity, to properly understand this work, we must critically analyze the Victorian governess's moral obligation and sexual pressure. What is more essential to take thought of is to explore the reality of the Victorian governess's social status, sexuality and morality since James believed that he had an obligation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re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Victorian Governess's social status and morality in this novel through the governess's experiences of the ghost of

---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Quint and Jesel. With more close reading, we will find that this novel deals with not only the actualities of class and moral identity of woman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marginal position of governess but the conflicted doubling vision as a way of representing the potentiality for governess's duty for pupils and horror of polarized sexuality.

James' aim is not to present the whole extensive life, but to express in fiction what he felt to be the essence of life, and this is especially so in his choice of subject and theme. For James, the main interest in the process of selection is the possibilities of life, and he is always faithful to this principle. So far as a real quality of human experiences is concerned, morality is not separate from the Victorian woman's sexuality but coexists with it. As a protector of morality the Jamesian governess tries to protect her charges from uncontrollable forces from the other world.

In conclusion, the Governess in this novel represents the social class of governess at the Victorian age, especially in terms of the psychological pressure of heavy domestic responsibility, high level morality and woman's conflict of sensitive her own age. The fact that any proper name is not given to the governess in this novel reflects James's intention to make her represent the governess of the Victorian age in general.